

# 총선 끝...광주시,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 집중 단속

### 19일까지 미철거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...불법현수막 특별 정비 후 60% 이상 감소 성과

광주시가 4·10총선 종료에 따라 시민의 안전 운 행·보행 등을 위협하는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 정비 에 나섰다.

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선거 현수막 을 일제 정비한다.

광주시는 시·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현 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.

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후 즉

시 자진 철거해야 하는데도, 선거용 현수막을 철거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.

광주시는 특히 자진 철거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우선 계도 요청을 하고,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 우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시는 앞서 올해를 불법 현수막 근절 원년으로 삼고 지난 1월부터 현수막 특별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내 고 있다.

시와 구청은 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 용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면 신고 접수 즉시 실시 간으로 현장을 방문해 체증한 뒤 곧바로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.

시는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우고, 불법으 로 게시한 광고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 속을 강화하고 있다.

이 같은 다양한 노력 덕분에 도심 내 불법 현수막 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 실제 올 들어 지

난 3월 말까지 10만 3009건을 정비했는데, 이는 지 난해 같은 기간(25만5618건)보다 60% 이상 불법 현수막이 감소한 수치다. 신속한 정비와 무관용 과 태료 부과 원칙 등이 불법 현수막 근절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.

특히 광주시의 불법 현수막 정비 사업 중 가장 눈 에 띄는 시스템은 사실상 그동안 방치했던 정당 현 수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. 실제 지난 한해 396건에 그쳤던 정당 현수막 정 비 건수는 올 들어 불과 3개월 만에 1071건으로 크 게 증가했다.

시는 정당현수막 중 설치 기간 15일 경과, 교차로 ·횡단보도·버스정류장 현수막 높이 2.5m 미만 계

시, 정당 명칭·연락처 미기입, 어린이보호구역과 소 방시설 등 금지구역에 게시한 사례에 대해선 계도 요청 없이 현장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.

이 과정에서 일부 정당 관계자들이 정치권력 등 을 악용해 관련 공무원을 압박하거나, 거세게 항의 하는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"선거 종료 후 선 거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 한 가로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"면서 "특히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이후 불법 게시 사례가 줄고 있으 며,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광주 도시를 유지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## 광주시관광공사-한국공항공사, 관광활성화 '맞손'

### 항공 이용객 증대·여행상품 개발 광주FC·기아 경기 공동프로모션



광주시관광공사는 "지난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과 '광주관광 및 광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"고 14일 밝혔다.

(사진) 주요 협약 내용은 ▲광주지역 관광자원 및 광주 공항(항공교통) 공동 홍보를 통한 관광객 및 광주· 전남 항공교통 이용객 증대 ▲광주·전남 관광자원 활용 여행상품 개발 협력 및 합동 프로모션 ▲관광 및 항공분야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이다.

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광주를 홈 으로 하는 K리그 광주 FC와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 즈 경기 직관상품 개발판매 공동 프로모션과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발굴·시행할 계획이다.

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광주시관광공사와 광주

의 하늘길 관문인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과의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관광자원 홍보 및 방문객 확대, 항 공여행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김진강 광주시관광공사 사장은 "광주공항은 지 난 수십년간 지역의 항공교통 인프라 역할을 성실

히 수행하며 관광마이스 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"면서 "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발전과 더불어 재미와 활력이 넘치 는 익사iting 광주 실현을 위해 힘껏 날아 오르겠다"고 의지를 다졌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

## 광주도시공사-화순문화관광재단 지역상생 협약

### 임대아파트 주민 관광체험 등



광주도시공사와 화순문화재단은 지난 12일 사 회적 책임 실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'지역상 생 상호협력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.

(사진) 주요 협약 내용은 ▲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 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공유·발굴 추진 ▲사회공헌 활동 추진사업 및 관련업무전반 인력·정보 교류 활 성화 ▲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.

도시공사는 특히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사가 관리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화순 문화관광 체 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.

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"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와 화순군이 상호 협업을 통한 상생모델이 되 길 바란다"며 "앞으로도 지역간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/박진표 기자 lucky@

히 수행하며 관광마이스 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"면서 "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발전과 더불어 재미와 활력이 넘치 는 익사iting 광주 실현을 위해 힘껏 날아 오르겠다"고 의지를 다졌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

## 놀고 즐기며 배운다 '5·18 캠프'

### 5·18교육관, 23일까지 초등생 자녀 가족 모집...27~28일 무료

광주시5·18민주화운동교육관은 "27~28일 광주·전남지역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 상으로 5·18가족캠프를 운영한다"고 14일 밝 혔다.

5·18가족캠프는 1박 2일 동안 5·18자유공원 등 사적지를 투어하고, 방 탈출 게임, 가족 골 든벨 등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경직되고 엄 속한 분위기가 아닌 놀고 즐기며 5·18광주민 주화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다.

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세대 대다수가 5·18을 겪지 않은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가족

단위 시민에게 5·18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알리는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광주·전남지역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를 포함 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, 캠프 참 가비용은 무료다. 선착순 12가족을 모집한다.

신청은 5·18교육관(062-372-5180)이나 구 글 폼으로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 하면 된다.

광주시 관계자는 "5·18가족캠프를 통해 가 족의 소중함과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고, 동시 에 5·18의 민주시민 정신을 다음 세대에도 계 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

##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

### 시, 시민연구반 운영 등 협업

광주시가 '시민과 함께하는 탄소다이어트' 사 업 강화 등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나선다.

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지난 9일 진흥원 다목적강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 한 가운데 '공공기관 현장대화'를 열고 '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'을 주제로 다

양한 실천 과제 등을 논의했다.

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이날 ▲생 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확산(온도 낮추기 우 수아파트 사업) ▲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온실 가스 감축 추진 ▲기후위기대응 시민연구반(리 방팀) 운영 협업 등도 약속했다.

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현재 기후·환경·에너 지 연구, 환경교육 및 시민실천 사업, 사업진흥 등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## 환경오염물질 배출 7곳 적발

### 광주시, 시민 참여 합동점검

광주시는 "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·점검에서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"고 14일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예방과 지도·점검의 투 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함께 했으 며, 대상은 하남, 평동, 첨단 등 주요 산업단지예 있는 대기 및 폐수배출업체 34곳이었다.

광주시는 점검결과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, 대 기방지지설 기계·기구류 훼손·방치,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건을 적발했다. 이 중 대기 자가측 정 미이행 3건은 광주시 사회재난과(민생사법수 사팀)에서 수사하고, 기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.

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"민관 합동점 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환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 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하겠다"고 말했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## 수 목 장

